

농촌의 의식

기쿠치 평야에서는 옛날부터 농사 절기에 열리는 의식이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현재도 열리고 있는 중요한 전통적 행사로서 여름의 ‘후친사이’ (“바람을 가라앉히는 축제”)와 1~2 월의 ‘우마쓰쿠리’가 있다.

후친사이는 태풍이 오기 전인 7 월부터 8 월 상순에 치르는 신을 위한 제사로서 벼농사를 폭풍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행사다. 바람이 병을 일으킨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지역의 건강과 생활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다. 참가자는 벼짚으로 작은 모형 삿갓과 도롱이를 만들며 축제를 준비한다. 축제 당일에 이 삿갓과 도롱이를 대나무 막대에 매달아 마을의 주 출입구 옆에 놓고, 실제 삿갓과 도롱이가 그것들을 착용한 사람을 지키는 것처럼 작물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를 기원하며 신사의 신관이 액막이를 한다.

또한 겨울의 풍물인 ‘우마쓰쿠리’에도 벼짚이 사용된다. 어린아이가 짚으로 작은 말을 만들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한다. 옛날에는 소와 말이 없으면 대규모 벼농사를 할 수 없었다. 나이가 많은 아이가 나이가 적은 아이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짚으로 만든 말은 이듬해에 교체할 때까지 집에 장식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든 말을 과자나 푼돈과 바꾸기 위해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는 풍습도 있다. 우마쓰쿠리는 설날 새벽, 또는 음력 ‘첫 오일’(2 월의 첫 말의 날)에 맞추어 2 월 상순에 열렸다.